

<http://dx.doi.org/10.17703/JCCT.2017.3.4.107>  
JCCT 2017-11-13

## 한국간호의 선구자 엘리자베스 쉐핑 (Elizabeth J. Shepping, R. N.)의 간호선교

### A Pioneer of Korean nursing, Elizabeth J. Shepping's Nursing Missionary Work

윤매옥

Me Ok, Yoon

**요약**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 미남장로교 간호선교사인 엘리자베스 쉐핑(Elizabeth J. Shepping, R. N. 한국명: 서서핑, 1880~1934)의 간호선교활동을 간호학의 관점에서 정리하고 일제 강점기 한국여성의 삶과 한국간호의 역사적 사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쉐핑의 간호선교는 주로 광주 제중병원, 군산 구암예수병원, 세브란스병원을 중심으로 환자간호와 소외된 한센환자를 방문하여 헌신적인 간호활동을 전개하였고 질병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보건간호활동을 펼쳐나갔다. 또한 억압되었던 여성의 인권을 회복시키기 위해 여성교육과 간호사 양성에 힘썼고, 인간의 영혼구원을 위해 복음사역에 최선을 다하였다. 또한, 일제의 압제에 눌려있는 한국을 세계무대에 올려놓기 위해 조선간호부회를 창립하였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라는 좌우명에 기초한 쉐핑의 삶은 전인적 돌봄의 간호선교였다.

**주요어** : 한국, 간호, 선구자, 선교

**Abstract** This study was to summarize in Nursing perspective nursing missionary activities of Elizabeth J. Shepping, R, N(1880~1934), a Southern Presbyterian nursing missionary and explore Korean women's lives and Korean nursing history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Shepping committed herself to nursing activities, providing care to the lepers and patients mainly in Gwangju Jejung Hospital, Gunsan Guam Jesus Hospital, and Severnce Hospital, as well as engaging in nursing activities for disease prevention in local communities. She put much effort in educating women and nurses to help recover women's human rights, simultaneously spreading gospel for salvation. She founded the Chosun Nursing Association to help Korean community oppressed under Japanese colonial. Shepping's life based on her motto, "Not success, but service," was holistic nursing missionary work.

**Key words** : Korea, Nurse, Pioneer, Missionary

\*정회원, 한일장신대학교 간호학과  
접수일자: 2017년 8월 22일, 수정완료일자: 2017년 9월 18일  
게재확정일자: 2017년 10월 26일

Received: 22 August, 2017 / Revised: 18 September, 2017  
Accepted: 26 October, 2017  
\*Corresponding Author: yoonhospice@hanmail.net  
Dept. of Nursing, Hanil University &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 I. 서론

1910년대 일제강점기 우리나라의 간호사업은 서양 간호선교사들에 의해 근대적 간호로 시작되었으며, 100여년이 지나는 동안 큰 변화와 발전을 이루었다. 1 세기가 지나가는 시점에서 지나온 한국간호역사를 이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1890년대 서양간호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병원중심의 환자간호를 하면서 차츰 지역사회 보건간호 및 간호교육의 필요성과 함께 한국의 근대간호를 도입하였다. 간호 계에서 다루어진 간호선교의 연구는 대부분 근대간호의 시작시기에 활동한 간호선교사들의 명단 정도만 수록되어 있으며, 서양간호사들의 선교사역에 관한 심도 있는 사료는 부족한 실정이다[1]. 한국간호역사의 통합된 관점에서 근대간호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간호선교사에 대한 개개인의 심층적 이해가 필요하며, 간호선교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한말·일제강점기 서양간호사의 활동을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근대간호의 중심인물인 서양간호선교사 중에 개별적 연구대상은 에드먼즈(Margaret Edmonds), 보딩(Maren Boarding), 쉐핑(Elisabeth Shepping) 등 소수의 인물에 한하며, 대부분 신학과 사회복지학, 교육학, 의사학 측면에서 연구가 수행되었고 간호학적 측면에서의 연구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특별히 일제 강점기 한국여성을 위해 헌신한 쉐핑 간호선교사의 한국간호에 대한 공헌을 밝힘으로써 그가 걸어왔던 숭고한 간호선교를 고찰해 볼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야(not success, but service)'로 대변될 수 있는 쉐핑의 간호선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촉구하고 그의 희생적 삶의 족적을 살펴보면서 한국간호선교의 미래지향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간호선교사 엘리자베스 쉐핑(Elizabeth J. Shepping, R. N. 한국명: 서서핑, 1880~1934)의 간호선교활동을 탐색하고 정리하며, 그의 행적의 의미를 간호학적 관점으로 분석하고 재구성하기 위한 연구이다. 본 연구자료는 쉐핑이 자신의 활동을 기록하여 미국 선교부로 보고한 연례보고서인 Korea Mission Field, 기고

문의 일부, 백춘성[2], 양국주[3], 양창삼[4]의 저서, 그 외 한국간호역사와 쉐핑에 관한 관련문헌 및 기존 연구들을 참고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일제강점기 한국여성의 삶과 간호

구한말 일제 강점기 한국 여성들은 새장안의 새처럼 집안에만 갇혀 있었고, 집밖에서의 활동은 허락되지 못하였던 사회적 관습으로 여성문맹이 많았다. 여성들의 교육의 기회는 봉쇄되어 정규교육을 받은 여성은 극히 소수에 그쳤고 한글도 해독하지 못하며 경제권도 없고, 여성들의 의식자체도 낮았다[4].

간호가 시작된 1900년 초 한국의 사회는 직업여성을 천시하는 사회적 풍토가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한국여성이 주도적인 간호교육을 시작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하지만 차츰 한국여성들을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여성의 지위를 높일 수 있었던 것은 외국 선교사들이 내한하면서부터 한국간호의 태동과 함께 간호교육의 시작에 기여가 있었기 때문이다[5].

한국 최초의 간호교육은 1903년 미국 북감리교 선교사인 에드먼즈(Margaret J. Edmonds)에 의해 설립된 보구여관 간호원 양성소이다. 1912년 보구여관 간호원 양성소는 동대문 부인병원 양성소와 합병하여 교육이 시작되었으나, 1932년에는 신입생 모집을 못하고 축소되어오다가 1933년 폐소 되었다. 1906년에는 보구여관 간호원 양성소 뒤를 이어 미국 북감리교 간호선교사인 쉴즈(Esther Lucas Shields)가 세브란스병원 간호원 양성소에서 간호교육을 시작했고, 1910년 첫 졸업생을 배출하였다[6]. 이를 계기로 한국여성들이 사회에서 활동하게 되었으며 한국여성해방에 크게 공헌하였다. 곧 한국에 간호교육이 정착된 것은 서양 선교사들의 헌신적 노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같이 일제강점기에는 법률의 개악, 여성교육과 사회진출의 제한, 권위적인 분위기 등으로 한국여성의 간호전문직의 자율적인 발전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서양간호선교사와 초기 한국간호사의 간호와 교육에 대한 관심과 헌신으로 한국간호는 태동하기 시작하였고, 나아가 독립적인 직업인으로 활동하였으며, 조선간호회·조선간호부협회 등의 단체조직을 설립하여 전

문직업인으로서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였다[7].

## 2. 간호선교의 준비(1980~1912)

간호선교사 엘리자베스 쉐핑(Elizabeth J. Shepping, R. N. 한국명: 서서핑, 1880)은 1880년 9월 26일 독일 비스바덴에서 태어났다[4]. 아버지 없이 태어난 후 네 살 무렵 어머니는 미국으로 떠났으며 외할머니의 보살핌으로 양육되었다[7].

쉐핑은 독실한 로마 가톨릭 신자였던 외할머니의 도움으로 가톨릭교회 부속학교(parochial school)를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가 어머니를 만나 미국 뉴욕에 있는 브루클린 공립학교에 입학하였으며 1899년 가톨릭배경의 중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4]. 어린 시절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가난하고 외롭게 성장했던 그는 그토록 그리던 어머니를 재회하였지만, 모녀간의 애절한 사랑을 느끼기보다는 엄격한 규제와 낮은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뉴욕에서의 생활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했고 독일어에서 영어로 사용해야 하는 부담감, 어머니의 냉혹함 등은 건디기 힘든 일이었으며 정체성의 혼란을 가졌던 청소년 시기였다[7].

쉐핑은 독일계 미국인으로 독일명은 엘리제(엘리스) 요한나 쉐핑(Elise Johanna Shepping)이며, 미국명은 엘리자베스 요한나 쉐핑(Elizabeth Johanna Shepping)으로 외할머니의 엘리자베스라는 이름과 어머니의 쉐핑이라는 성을 물려받았다[2][4][8].

고등학교를 졸업 후 쉐핑은 간호사가 되기를 희망하고 간호학을 전공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리고 뉴욕의 성마가 간호학교(St. Mark Nurse School)에 입학하여 1901년에 졸업하였으며, 뉴욕시립병원에서 간호사로 수련을 받았다[4][7]. 쉐핑이 간호교육과 훈련을 받았던 성 마가병원은 극빈자를 위한 구제활동으로 유명하였는데 쉐핑의 섬김과 돌봄 사역은 이러한 환경에서 잘 훈련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간호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유대인 결핵환자 요양소에서 일하였고 이민자 수용소에서 이민자들을 돌보는 사회봉사활동, 여행객을 돕는 선교회에서 자원봉사를 하였는데 이러한 경험은 훗날 한국간호선교에 큰 힘이 되었으리라 본다.

쉐핑은 어느 날 동료 간호사의 권유로 개신교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큰 감명을 받았다. 자신의 선행이나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으며, 예수그리스도께 자신의 삶을 철저히

바쳐야 한다는 확신으로 결국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고 개신교로 개종하였다. 그리고 그 사실을 어머니에게 알렸을 때 어머니는 심하게 분노하였으며 딸에게 의절을 선언했고, 결국 그는 집밖으로 내어쫓김을 당하고 말았다. 쉐핑은 어머니로부터 두 차례나 버림을 받아 마음에 큰 상처를 안게 되었고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큰 슬픔을 안고서 살아가게 되었다. 그리고 오직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결심을 하였다[2]. 후에 그는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거절과 상처를 분노로 표현하지 않고 자신의 처지와 비슷한 고아들, 과부들을 안쓰럽게 여기며 그들을 섬기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었다[3]. 쉐핑은 뉴욕시 주이시병원(The Jewish Hospital)에서 일하였고 1908년에는 야간 수간호사로 일하였다[4]. 또한 그는 성경을 확실히 알고 싶은 마음으로 1904년 뉴욕에 있는 화이트박사의 성서교사훈련학교(Bible Teachers Training School)에 입학하여 1911년 졸업하였다. 쉐핑은 야간에 병원근무를 하면서 8년간에 걸쳐 신학교에 다니면서 복수학위를 전공하는 등 많은 훈련을 쌓은 것이다. 또한 자신의 직업을 통해 인생을 살아가는데 자립의 비결을 배웠으며 신앙교육을 통해 일어버린 영혼구원에 열정을 갖게 되었고 선교에 대한 강렬한 열망을 품게 되었다. 그 무렵 남장로교 해외선교부로부터 '한국의 병원에 훈련된 간호사들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들은 그는 자신이 받은 훈련으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한국의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하였다[4]. 그리고 북미합중국 남장로교 선교부에 선교사로 자원을 하여 1908년 의료선교사(medical)로 허가를 받았고 1909년 광주로 부임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학업을 마친 이듬해인 1912년 2월 13일에 한국 의료선교사로 임명을 받았으며 1912년 2월 20일에 샌프란시스코를 떠나 한국으로 향했다[2].

## 3. 한국에서의 간호선교(1912~1934)

### 1) 병원간호

일제 강점기 한국의 병원은 설립운영주체에 따라 조선총독부에서 직접 운영한 관립병원과 지방기관에서 운영한 공립병원, 그리고 사립병원이 있었다[2]. 쉐핑은 1912년 32세의 처녀로 한국에 도착한 후 광주선교부에 소속되어 한국어와 일본어공부를 하면서 제중병원에서 병원업무에 전념하였다. 동시에 여성을 위한 복음전도

사역까지 봉사하였다[7]. 1914년 군산으로 이임되어 1917년까지 군산 구암예수병원에서 환자간호를 비롯한 병원사역의 주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그 외에도 간호사 양성, 복음전도, 주일학교 봉사활동 등을 활발히 펼쳐 나갔다.

1917년 남장로교 선교부는 웨핑을 세브란스에서 근무하도록 파견하였으며, 그 해 9월부터 세브란스 병원에서 환자간호 업무를 하면서 간호사 양성을 위해 간호학교를 운영하였다. 그러나 그는 한국에 온지 2년 만에 스프루(sprue : 만성흡수부전증)에 감염되었다[4]. 병으로 몸 상태가 나빠져서 하루 반나절 근무만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주당 14시간을 가르쳤고, 보통 오후 9시까지 병원에서 사용되는 물품의 세탁과 바느질, 침상시트를 준비하는 일까지 수행하였다. 그밖에도 일본정부가 모든 교육을 일본어로 할 것을 명령하여 간호학생에게도 일본어로 가르쳐야 했기 때문에 웨핑은 일본어공부와 한자공부까지 하였다[3].

“저는 오후에 일본어를 배우기로 했고 .....가르치기 위해서 아직도 많은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일본어를 공부할 기회가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서둘러야 합니다. 일본정부가 2년 내에 모든 수업을 일본어로 가르쳐야 한다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책이나 교과서도 조선말로만 인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9]

웨핑은 1919년 건강상의 문제와 독립운동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세브란스에서의 간호를 그만두게 되었다. 그러나 1934년까지 광주에 본거지를 두고서 서울과 군산을 다니면서 간호사로서 의료사업에 참여하였고, 가정방문을 통하여 수백 명의 환자치료를 위한 간호활동을 펼쳐나갔다[4].

## 2) 한센환자간호

웨핑은 광주 제중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한센환자들을 정성껏 돌보았다. 양림동에서 약 3킬로 떨어진 먼산골 봉선리 마을 문둥이촌을 오가며 정성껏 그들을 보살폈다. 그리고 봉선리 한센환자들이 거주하는 곳의 식구들에게 한국어를 배우기도 하였다[7]. 당시 한센환자들을 치료할 전문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제중원 밖 벽돌가마터를 임시진료소로 정하였다. 그러나 끊임없이 물려오는 환자로 인해 주민들의 항의가 심해져 시내에

서 멀리 떨어진 새 공간을 마련하였으며, 1912년에는 ‘영국 극동과 인도구라협회’의 후원으로 한센환자를 위한 거주지(광주나병원)를 건립하고 한센환자를 돌보았다. 광주 제중원은 한센병자를 치료하는 중요한 병원이었으며, 간호사인 웨핑은 한센환자 치료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다. 늘 정성을 다해 간호하였고, 길에서 만나는 여자 한센환자나 거지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다가 목욕을 시키고 자신의 옷을 갈아입히고 밥을 먹여 보냈다[2]. 웨핑은 광주에서 군산 구암 예수병원으로 간 후에도 한센환자를 돌보았고, 광주제중원의 간호부장이 된 후에도 한센환자의 간호에 힘썼다. 1921년 웨핑은 봉선리 마을에 한센환자 교회를 열었고 환자들이 매일 한 끼씩 굶어 모은 헌금으로 멀리 제주 추자도에까지 전도자를 파송하는데 도왔다[3]. 또한 한센 환자의 자녀를 아들로 입양하였고 고아 13명을 딸로 입양하였다. 어느 추운겨울날 길가에서 떨고 있는 한센 환자 두 명을 웨핑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가 쓰던 하나밖에 없는 담요를 잘라서 각각 덮어주고 돌보아 주었다[2].

## 3) 지역사회방문 보건간호

1900년 초 환자들은 병원간호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간호를 받지 못하고 사망률이 높았으며 구역간호(distric nursing)사업이 필요하였다. 선교회에서는 보건간호사업을 펼치고자 하였으나 많은 환자를 보살필 공간과 간호사가 턱없이 부족하여 보건간호는 시작되지 못하였다[9]. 1920년 이후 세브란스병원에서 광주로 내려온 웨핑은 지역사회 의료구호와 사회구제사업(social relief work)을 시작하였다. 한국인들은 무지하고 너무 두려워하거나 경제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병원을 찾아오지 못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그는 한국인 환자들을 극빈층과 일상생활의 빈민층, 지불능력이 가능한 층으로 구분하였으며, 한국인의 대부분은 극빈층이 의료인을 찾아오기 때문에 치료에 제한이 많을 수밖에 없으며 무엇보다 예방사역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보고하였고[10], 직접 보건간호활동을 수행하였다[11].

이처럼 웨핑은 단지 신체적으로 아픈 환자를 치료하는 일만이 아닌 사회적 돌봄과 예방사역(preventive work)인 공중보건위생 실천을 위한 교육에 힘을 쏟았으며, 지역주민을 위한 금주·금연운동, 인신매매금지, 공장폐지운동 및 복음전도사역에도 주력하였다. 또한

그는 광주를 포함한 주변 마을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수백 명의 환자간호와 교육을 실시하였다. 당시 환자를 가정에서 병원으로 옮기는 것을 터부시했지만, 쉐핑의 보건간호활동은 환자관리에 대한 한국인의 관념에 큰 변화를 가져온 계기가 되었다.

#### 4) 여성교육 : 이일학교와 간호교육

쉐핑은 조선의 젊은이들이 기독교 교육을 통해 원대한 꿈을 갖기를 원했다.

“오늘날 십대의 한국 여성들은 ... 미래 한국의 어머니가 될 사람들이지만 동시대의 기독교 나라들의 여성들과 비교해 볼 때 많은 부분에서 부족하다. ... 가난한 가정의 여성을 부유한 가정의 여성들과의 차이를 줄이는 것, 그리고 그들의 생활을 깨끗하고 온전하며 건강한 수준으로 이끄는 것은 ... 기독교 교육자들이 직면한 문제이다.”[12]

쉐핑은 학교설립을 결심하고서 1922년 6월 광주 제중원에서 간호사 일을 하면서 사제를 털어 여성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가난하거나 부모의 반대로 학교에 갈수 없고 결혼 후 아이를 낳지 못한다하여 학대받는 여성, 과부와 불우하고 교육의 기회를 놓친 여성들을 위한 전도부인(Bible Women) 양성학교를 운영하였다[4]. 학생을 가르치는 곳으로 처음에는 쉐핑의 집에서, 그리고 ‘캘커타의 블랙 홀(The Black Hole of Calcutta)’이라고 별명을 붙인 오두막집에서, 다시 어느 선교사의 개인집에서, 그 후 오웬기념 성경학교의 건물을 이용하기도 했다. 1924년 미국 남장로교 선교회에서 정식 교육기관으로 승인을 받았으며 전남지역의 부녀자를 위한 여자 초급성경학교(Junior Bible School)로 출발하였다[13]. 좋은 뜻을 가지고 학교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미국교회에 알려지자 1926년 미국 로이스 니일(Ms. Lois Neel)이 자신의 부모님을 기념하기 위한 후원금으로 3층 붉은 벽돌건물을 세우고 학교이름을 이일 성경학교(李一, Neel Bible School)라 했으며 정부가 인정한 3년제 사립학교였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과과정으로 보통과와 성경과를 두고서 건강과 가정위생, 아동과 산모의 영양 및 교육론, 상처치료법, 세균 감염병 예방 등 의학과 간호학에 관련된 교과목도 가르쳤다. 쉐핑은 이일학교를 설립하고 1934년 서거하

기까지 교장직을 맡았으며 하루에 6시간씩, 매주 5~6 과목을 가르쳤고 일주일에 2번 예배를 드렸다[4]. 무지와 가난에서 신음하는 불행한 여성들을 계몽시키고자 교육의 기회를 놓친 노처녀나 기혼 여성에게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열어 놓고 비신자들까지 입학할 수 있도록 하였다[13].

이일성경학교는 전주에 있는 초급성경학교인 한예정성경학교와 교육의 목적, 과정, 입학자격, 교과과정이 같았다. 한예정성경학교는 1923년 9월 4일 미 남장로교 선교부에 의해 전북 초급성경학교(The North Chunchula Junior School)라는 이름으로 전주에 있는 여성들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설립되었다. 초대교장은 L. B. 테이트 (Mrs. L. B. Tate)였으며 1924년까지 2년 동안 봉사하였다. 그는 1895년 내한한 의료선교사 마티 잉골드(Dr. M. Ingold)인데 1905년 L. B. 테이트 (Rev. L. B. Tate: 최의덕)와 결혼을 했다. 1960년 미 남장로교 선교부의 방침에 따라 광주 이일학교는 전주 한예정 성서신학원과 합병하여 1962년 4월에 개교예배를 드렸다[13].

쉐핑은 이일학교를 운영하는데 자신의 급여를 모두 사용하였으며, 한국여성과 같이 무명옷에 고무신을 신고 보리밥에 된장국을 먹고 살았다[4].

그는 군산 구암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는 동안 하루라도 빨리 간호사를 양성해야 한다는 일념을 가졌으며, 독자적인 간호학교를 세우고자 했던 간절한 소망이 있었다. 그리고 부족한 간호인력을 해결하기위해 군산에 간호사 양성학교(Training School for Nurse)설립을 위한 청원을 미국 남장로교 선교부에 요청하였으나 한 반을 운영할 수 있다는 편지를 받았다.

“서울에 이미 그러한 학교가 있고, 세브란스 병원과 연결된 연합훈련학교(a Union Training School)하나를 설립할 계획도 있어서 그곳(군산)에 별도로 학교를 세울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그러나 간호사 양성을 위해 한 반의 수업을 운영하는 것을 승인한다. 허가한 반의 목적은 병원 직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간호사들이 졸업해서 병원을 나가지 않도록 하며, ... 수업으로 인해 정규 병원 업무에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된다.”[4]

1917년 쉐핑은 세브란스병원으로 파견되어 세브란스 병원 간호사훈련학교에서 간호사 양성에 전력하였다.

그는 군산 구암예수병원에서 근무하면서 간호사로 가르쳤던 이효경을 비롯한 3명의 제자를 세브란스병원으로 데려가 정식면허간호사로 배출시키고 한국간호의 리더로 양성하였다[4]. 이효경은 조선간호부회 창립당시 부회장으로 쉐핑과 함께 일했다.

쉐핑은 세브란스 병원근무를 하면서 간호사 양성에 주력하였으며, 1918년에는 세브란스 유니언의과대학 간호사훈련학교에서 네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는데 기여하였다[4]. 쉐핑은 이러한 한국여성의 교육과 간호전문직 양성에 총력을 기울였다. 1919년 3·1독립운동에서 부상자들을 치료해 주었고, 피검된 애국지사를 방문하고 필수품을 제공해주며 도와주었는데, 일제는 기미독립운동에 관여했다는 이유를 들어 쉐핑을 서울에 있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에 그는 광주로 내려갔으며, 1934년까지 군산과 서울을 왕래하면서 간호사역에 참여하였다[2][4]. 쉐핑은 조선간호부회 회장으로 봉사하는 동안 간호교과서, 실용간호학, 간호요강, 간이위생법 등 간호학 교재를 편찬했다. 또한 간호학 교과서 (Practical Nursing, Short History of Nursing)를 번역 출간하여 세브란스병원과 선교병원 그리고 간호학교에서 교재로 사용하도록 교육사업을 활발히 수행하였다. 1932년 조선간호부회보에 보고된 조선간호부회 지정출판도서 22권이 선정되었으며 그 중 쉐핑의 저서가 4권으로 가장 많았다[2][4].

#### 5) 대한간호협회

쉐핑은 1923년 4월에 재선서양인 졸업간호부회와 17명의 선교계 간호학교를 졸업한 한국인 간호사의 연합체인 조선간호부회(현 대한간호협회)를 창립하고 회장으로 봉사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는 일본에게 강탈당한 조국의 운명을 세계만방에 알리고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는 조선간호부회를 국제간호협의회(ICN)에 가입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3]. 그리고 재선서양인 간호부회는 1926년 4월 조선간호부회에 통합하였는데, 이는 일국 일 단체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국제간호협의회(ICN) 가입을 위함이었다. 또한 조선간호부회는 간호교육의 표준화, 간호학 교재 편찬 등 간호교육을 확립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보건간호사업, 지역사회 구제사업 등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였다.

1925년부터 1934년까지 34호의 조선간호부회지를 국문과 영문으로 발간하여[13], 국민의 질병퇴치와 건강

을 증진하고 간호수준과 간호의 이상을 향상시켜 나갔다. 1929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되는 ICN 총회에 회장인 쉐핑은 군산에서 가르쳤던 제자 이효경, 조선간호부회의 학술활동을 맡았던 이금전과 함께 한국인 대표로 참석하였다[14]. 그러나 조선은 일본에 주권을 빼앗긴 속국이므로 독립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일본의 주장 때문에 실패로 돌아갔다. 쉐핑은 뜻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조선간호부회의 ICN 정회원 가입은 국위 선양과 민족의 독립을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4]. 그는 국가대표부를 거쳐 가면서 개인적으로 위원들을 찾아가서 설득하며 한국간호를 세계로 넓혀가는 노력을 하였다. 1929년 ICN 총회 참석차 그의 생애 최초이자 마지막 안식년을 가졌는데, 안식년조차 조선을 위해 모두 바쳤다[15]. 1932년 7월 쉐핑은 심한 병중에서도 부축을 받아가며 일본 동경에서 열리는 ICN회의에 참석하여 조선간호부의 실정에 대해 호소하였다. 한국간호를 향한 그의 간절한 꿈은 그가 서거한 지 15년 후인 1949년 6월에 ICN 정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세계무대를 향한 도약의 첫발을 내딛게 되면서 이루어졌다. 한국간호는 4년마다 개최되는 총회에 대표단을 파견하고 2년마다 열리는 대표자회의(CNR)회의에도 참여하였다. 1989년 5월 제19차 ICN 총회를 서울에서 유치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한국간호의 입지를 확고히 굳혔다. 2015년 6월에는 서울 ICN 회의를 개최하여 한국간호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알리게 되었다. 이처럼 오늘의 한국간호는 대한간호협회의 전신이었던 조선간호부회의 초대회장인 쉐핑의 헌신과 믿음의 선배들의 땀으로 엮어진 산실이라 말할 수 있겠다. 또한 그의 헌신은 한국간호를 세계 속의 간호로 비상하게 하는 발판이 되었다.

## IV. 논의

본 연구는 인간의 총체적 건강반응에 관심을 가지고 쉐핑의 간호선교활동을 간호학적 측면에서 논하고자 한다.

쉐핑의 간호선교 이전의 삶(1980~1912)을 살펴보면, 그는 독일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냈다. 아버지를 모른 채 태어난 어린 시절은 부모의 애정을 느끼지 못한 외로운 성장과정이었다. 어머니의 보살핌 없이 자

랐던 그의 유소년시절은 친구들과로부터 따돌림 가운데 두려움과 무서움, 그리고 불안 속에서 자아 정체성 혼돈 시기라 볼 수 있다. 초등학교를 마치고 12살 되던 해 어머니를 찾기 위해 혼자서 멀리 미국으로 건너갔던 쉐핑은 질곡과도 같은 험난한 순간들을 극복하면서 32세가 되기까지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육과정을 밟은 것이다. 그는 어린나이에 낯선 미국 땅에서 다양한 인종 속에 묻혀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일, 모국어인 독일어에서 영어로 말하고 공부해야 하는 부담감, 8년 만에 만난 어머니로부터 받는 냉대는 극복하기 힘든 일이라 생각한다. 어린 시절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도록 누군가의 지지가 필요하였지만 그에겐 의지할 데 없는 혼자만의 삶이었다. 이러한 경험은 아마도 쉐핑이 집 없는 자와 버림받은 아이들, 상처받은 자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역동적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자신과 같은 어려운 처지에 놓인 자, 가난과 질병과 고통 속에서 해매는 자를 위한 삶을 꿈꾸었고 진로를 간호사로 정하였는지도 모른다. 그는 간호사 훈련과정에서도 성서학과 교육학 등을 전공하였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그의 생애 큰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다. 이는 그의 삶을 통한 상처와 공허한 마음을 치유하고 의로운 삶을 위한 유일한 길임을 깨닫게 되었을 것이다. 극한 처지에서도 그가 재기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써 그에게 임하는 영적 충만함과 말씀 안에서 작용하는 강한 믿음이 새로운 변화로 작용되었으리라 짐작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성경의 진리를 배우고 싶은 열망이 생겼을 것이다. 그가 간호사 훈련을 마치고 정식 간호사로 일하면서도 학업을 지속하는 일들은 결국 그의 간호선교의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었으며, 자립할 수 있는 비결을 체득하게 된 기회였다고 생각된다. 쉐핑이 수학한 간호학, 성서학, 교육학은 그의 선교사역에 필요한 의료, 전도, 교육 등에 가장 적합한 교육과정이었을까 생각한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바울을 영적지도자로 준비시킨 것처럼 쉐핑에게 한국여성과 한국간호를 위한 선구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시킨 것으로 보여 진다.

다음으로 쉐핑의 한국간호선교(1912~1934)활동을 살펴보면, 그는 서양간호선교사들과의 차이점을 볼

수 있었다. 첫째, 쉐핑은 간호사로서 그의 관심의 대상은 가난한 자와 병든 자, 고아와 과부였으며 그중에서도 가장 소외된 한센환자였다. 상처와 피고름으로 온몸이 일그러지고 오갈 데 없는 이들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처를 싸매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 것이다. 그가 군산 구암예수병원에서 근무하면서 간호사 양성을 그토록 원했던 것은 한센환자를 비롯한 병들고 약한 자에 대한 긍휼함과 연민의 마음이 더욱 컸기 때문일 것이다.

둘째, 그의 간호선교지역은 도움의 손길이 거의 닿지 않은 호남 지역과 제주 추자도, 평양 등의 미개척지였으며,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곳마다 순회하며 간호활동을 펼쳐나갔다.

셋째, 간호시간은 아침부터 밤 늦도록 주야를 가리지 않고 어느 때라도 찾아가서 돕는 초인간적인 삶이었다. 쉐핑은 병들고 약한 자를 위해서 자신의 건강을 챙기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진다. 중병상태에서도 일본에서 개최되는 국제간호협회에 참석하여 한국간호의 실정을 호소하였으며, 서거하기 일 년 전 중환상태에서도 제주도 모슬포에 가서 신앙사경회와 순회전도, 임종전 4개월간의 와병 상태에서 학생들을 침상에서 가르친[2] 불굴의 여선지자였다. 쉐핑의 업적은 한국간호에 남기고 간 고귀한 유산이며 한국간호선교가 계승해야 할 실천과제가 아닐까 싶다. 그가 보여준 민족적 사랑의 실천은 한국여성의 영혼구원을 위하여 죽기까지 사명을 다한 전인적 간호의 호시[16]라고 말할 수 있겠다. 쉐핑의 선교업적에 대해서 일부 학자들은 복음전도, 의료선교, 교육선교 및 사회사업의 네 차원을 통합적으로 병행한 통전적 선교[17][18]라고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쉐핑의 간호선교활동을 간호학적 관점에서 인간의 신체적, 심리 사회적, 영적인 측면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인간은 신체적, 정신·사회적, 영적측면이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는[19] 전인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간호는 인간중심의 전인간호개념에 입각하여 인간의 기본요구인 신체적, 정신·사회적, 교육적, 영적요구를 파악하고 그 요구를 충족하기위해 전인적으로 간호문제를 중재하는 전인간호가 전제되어야 하겠다.

첫째, 쉐핑은 광주 제중병원, 군산 구암예수병원, 서울 세브란스병원 및 지역사회에서 질병으로 고통 받는 자, 굶주린 자, 가난한 자의 신체적 돌봄(Physical Care)

에 주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지역사회구제활동, 금주 금연운동, 절제 운동, 인신매매 반대, 공창폐지운동 등 윤락여성 선도활동을 전개하였다. 곧 진정한 삶의 의미와 정체성, 올바른 삶의 방식을 가르쳐준 심리·사회적 돌봄(Psychosocial Care)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자신의 관점이 아닌 예수그리스도의 관점에서 간호를 계획하고 수행했음을 알 수 있다. 즉,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하였다고 생각한다. 그리스도의 복음전도 사역을 통해 간호이념인 사랑과 헌신을 삶으로 보여주었으며, 수많은 병들고 가난한 이들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영적 돌봄(Spiritual Care)의 선교였다.

넷째, 쉐핑은 일제강점기 한국인의 고통을 헤아리며 시대적 한계를 극복하면서 질병과 무지, 가난과 억압 속에 있는 한국여성의 인권회복과 여권신장을 위해 여성을 교육하였다. 민족의 독립과 가난한 조선의 여성, 그리고 조선의 간호가 세계무대로 극상 할 수 있도록 한국간호의 세계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이는 환경적이고 교육적 돌봄이었으며, 위기에 처해있는 민족과 백성을 구하기 위한 구국간호였다.

결론적으로 쉐핑은 선교활동을 통해 신체적, 심리·사회적 간호, 여성교육, 그리고 복음사역을 통한 영적 간호 등 총체적 간호를 수행하였다. 곧 인간중심의 전인적 간호선교이며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였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 한국여성의 삶과 한국간호의 역사 속에서 미국 남장로교에서 파송한 엘리자베스 쉐핑(한국명: 서서핑, 1880~1934)의 간호선교활동을 살펴봄으로써 간호학의 관점에서 정리하고 선교적 사명을 조명하고자 하였다. 쉐핑의 간호선교는 한국간호와 여성교육의 선구자적 모델로서 간호학적 의의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독일에서 출생하여 12세 때 미국으로 건너가 간호학과 성경학 및 교육학을 공부하였고 철저한 간호선교 훈련 후 한국에 왔다.

둘째, 광주제중병원, 군산 구암예수병원, 서울세브란스 병원에서 입원환자, 한센환자, 고아와 거지들을 찾

아가 신체적 돌봄에 헌신하였다.

셋째, 지역사회방문간호와 공중위생간호로 무의탁자, 극빈자 및 노인 간호, 모자보건간호, 긴급구조사역, 금주, 금연, 인신매매금지, 공창폐지운동 등 심리·사회적 돌봄을 전개하였다.

넷째, 예수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를 찾아 복음을 전하였고 성경을 가르치며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영적 돌봄을 수행하였다.

다섯째, 여성교육을 위해 이일학교를 설립하여 22년 동안 교장으로 봉사하였고, 간호교육을 실시하고 간호지도자 양성에 주력하였다. 민족의 독립과 한국간호의 세계화를 위해 조선간호부회(현 대한간호협회)를 창립하고 11년간(1923~1934) 회장으로서 간호표준과 체계구축, 간호교과서 출간, 조선간호부회보 창간, 국제간호협의회(ICN)에 준회원으로 가입시켰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서 볼 때 쉐핑의 간호선교는 인간의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및 교육적 차원의 개념을 총체적으로 담고 있는 한국여성을 위한 전인적 간호선교였다.

일제강점기 쉐핑이 한국간호를 세계간호의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기여한 것처럼 한국간호선교가 세계를 향해 역동적으로 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제언한다. 첫째, 외국간호선교사들에 대한 선교활동경험과 활동내용분석 등에 대한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지나온 간호선교의 역사연구와 현재의 간호선교 동향 및 미래의 간호선교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것을 제언한다.



## References

- [1] Oak SD. Identities of early modern nursing and nursing education in Korea: Margaret J. Edmunds and the first nurses' training school in Korea. 1903-1908. *The History and Christianity in Korea*. 2012;36:185-227.
- [2] Baek CS. Let's meet in heaven-the glorious life of Miss Shepping, missionary nurse. Seoul: Korean Nurses Association; 1996.
- [3] Yang KJ. Not Success But Service! Seoul: Serving the People; 2012.
- [4] Yang CS. Happiness that served Chosun. love and life of Shepping. Seoul: Serving the People; 2012.
- [5] Lee CY, Cho YH, Ko JS, Kim JA. Foreign nurse missionaries starting Yonsei nursing school.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1;17(1):44-51.
- [6] Yi GM. Modern period of Nursing Profession in Korea. Seoul: Hanul Publishing Co. 2003.
- [7] Yoon MO. Nursing Missionary Elizabeth J. Shepping's Education and Holistic Care for Koreans. *The Journal of Korean Community Nursing*. 2016;27(1):60-71.
- [8] Yim HM. Elizabeth J. Shepping, live a life of Jesus. Seoul: Kenosis; 2015.
- [9] E. J. Shepping, "Letter from Miss Shepping," *The Missionary Survey* (August 1918), 477-478.
- [10] Shepping, E. J. "Sanitary Work in Korea." *The Missionary Survey*, (October 1920), 640-642.
- [11] Yi GM, Kim HJ. Missionary public health nursing of Korea during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Journal of Korean Community Nursing*. 1999;10(2):455-466.
- [12] E. J. Shepping, Korean high school girls. *Korea Mission Field*, vol. 24, no. 3 (Mar. 1928), 54.
- [13] Lee SR. 70 years history of Hanil Theological college. Jeonju: Hanil Theological college; 1994.
- [14] Yi GM. Historical review of Lee Keumjeon, a pioneer in community health nursing in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2013;24(1):74-86.
- [15] Mrs. Knox, M. B. and Mrs. E. E. Talmage. "Miss E. J. hepping-An Appreciation." *The Korea Mission Field*, vol. 30, no. 10 (1934), 218-219.
- [16] Yoon MO. Nursing Missionary Elizabeth J. Shepping's Life of Care during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2006;2(1):71-78.
- [17] Choi Yk. The Holistic Mission of Elizabeth J. Shepping, R.N., Southern Presbyterian(PCUS) Woman Missionary in Korea. *Korean Journal of Christian Studies*. 2012;82:231- 261.
- [18] Yim HM. Elizabeth J. Shepping, live a life of Jesus. Seoul: Kenosis; 2015.
- [19] Yoon MO. The spiritual well-being and the spiritual nursing care of nurses for cancer patients. *The Korean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Care*. 2009;12(2):72-79.